

학부제에 따른 학과 통폐합 방식의 문제점 : 사범대학을 중심으로

김 천 기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

1. 들어가는 말

최근 각 대학들은 전면적인 대학교육 조직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개편은 교육개혁위원회의 대학교육 개혁의 기본 방안인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에 맞추어진 것이다. 대학의 다양화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대학 모형을 대학 스스로가 자율적으로 설계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며, 특성화는 각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대학의 특성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는 것이다.

교육부는 대학의 다양화와 특성화의 방법

으로 대학의 성격에 따라 네 가지 모형을 제시하였다. 학부교육에 중점을 둘 것인지 아니면 대학원교육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따라 '학부 중심대학'과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유형화하고, 다시 학부교육이나 대학원교육의 성격이 전문교육에 초점을 두는 교육인지, 아니면 학문연구에 초점을 두는 교육인지에 따라 직업지향 교육과 학문지향 교육으로 분류하였다. 이 모형의 제시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앞다투어 대학원 중심대학을 표방하고 있다. 이는 특히 대학원 중심대학의 경우 교육부로부터 우선적으로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고, 또한 대학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개편하는 데 선행 조건은 학부제 도입과 학과 통폐합이다. 즉, 유사한 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부로 하고 최소학점인정제를 두어 복수전공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는 종래의 대학교육이 이제 전문교육의 성격이 아니라, 교양교육의 성격을 더 강하게 띠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전문교육은 대학원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학부제에 따른 학과의 통폐합은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 습득 기회를 제공하고, 유사 교과목의 중복 개설을 지양하여 교육의 강의 부담을 줄여 연구의 질을 제고하는 동시에 행정 절차의 간소화와 예산절감 등을 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학과 통폐합은 잘못 시행되면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을 파생시킬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다.

실제 학부제 도입과 학과 통폐합에 따라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가 사범대학이다. 사범대학이라는 특성이 무시된 채 통폐합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기 때문이다.¹⁾ 여기서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통폐합의 논리가 사범대학에도 적합한 것인가? 그리고 통폐합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가? 사범대학의 무용론이 대두된 시점에서 추진되는 학과 통폐합은 사범대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 글에서는 학부제 도입과 학과 통폐합의 배경을 살펴보고, 학과 통폐합의 논리가

사범대학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그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이에 기초하여 사범대학의 개편 방안을 모색해 보기로 한다.

2. 대학의 다양화와 학부제 도입

대학의 다양화를 초래한 직접적 원인은 고등교육의 수요자 확대라 할 수 있다(기타 무라, 1995). 고등교육의 수요자 확대는 고등교육 기관이 확대되는 양적 측면의 변화와, 고등교육 기관이 다양화되는 질적 측면의 변화를 초래한다. 고등교육 기관의 양적·질적 변화는 입학 선발 기준의 다양화를 가져오며, 이는 고등교육 진학자를 공급하는 중등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된다.

특히 학생수의 증가는 학생집단의 다양화를 촉진한다. 전통적인 학생집단과는 다른 이질적인 동기, 학력, 출신계층, 연령, 인종 등을 배경으로 하는 새로운 집단이 형성된다. 이에 따라 입학 기준이나 방법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요구된다. 또한 학생들의 취학 패턴(정시제 등), 교육과정과 교수법, 학습 형태상의 변화도 요청된다.

최근 한국에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학의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대학들은 대학원 중심대학 또는 연구 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부제를 추진하고 있다. 학부제로의 개편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대학원 중심대학의 특징을 살펴보자.

1) 사범대학의 경우 학부제 실시 및 계열별 학생 모집을 불가하는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이 문제는 일단 수그러졌지만,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문제의 본질은 그대로 남아 있어 언제 다시 현안으로 떠오를지 모른다.

대학원 중심대학은 리즈만(Riesman, 1980)이 말하는 '교수 중심대학'과 비슷하다. 교수 중심대학은 전통적인 아카데미즘이 지배하는 대학으로 교육과 연구 중 연구에 우위를 두는 연구 중심대학이다(〈표 1〉참고). 이 유형의 대학에서는 새로운 지식의 생산을 위한 연구에 중점을 둔다. 따라서 교수는 학문적 가치의 생산자로서의 능력과 실적이 전달자로서의 능력보다는 인정과 보상을 더 받게 된다.

이 교수 중심대학에서 교육도 아카데미즘의 영향을 받게 된다. 교육과정이나 수업의 내용과 방법도 학생의 필요성보다는 교수의 연구상의 사정이나 학문 영역의 필요에 따라 구성되는 경향이 강하다. 교수는 자신의 학문 영역의 논리에 기초하여 구성되는 지식을 학생들에게 습득시키며, 학문적 기준에 따라서 학생을 평가한다. 교수는 학생을 자신의 학문 영역에 접근시키려고 하지 학생의 필요나 요구에 따라 교육을 하려 하지

는 않는다.

교수 중심대학에서는 학생이 이미 대학교육을 받는 데 충분한 학력과 학습태도를 구비하고 있다는 전제 아래 입학이 허락된다. 대학 입학시에는 학생에게 어떤 전문 영역을 전공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며, 입학 후에는 전공의 변경이나 전과·전학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것은 학생이 이미 입학시에 자기가 대학에서 무엇을 전공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한다. 학생은 교수의 아카데미즘이나 전문 영역에 충실한 계승자로서 받아들여진다.

이처럼 대학원 중심대학의 대학원은 교수 중심대학과 유사한 반면, 학부 중심대학은 '학생 중심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학생 중심대학은 소비자 중심주의의 원리에 따라 운영된다(〈표 1〉참고). 대학의 목적이 소비자인 학생들에게 봉사하도록 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요구와 필요성에 합치되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따

〈표 1〉 교수 중심대학과 학생 중심대학의 특징

구 분	교수 중심대학	학생 중심대학
가치·목표	아카데미즘 (연구업적 중시)	전수머리즘 (소비자인 학생의 필요성, 욕구 충족)
대학의 유력 구성원	지식 생산자인 교수	학습 소비자인 학생
대학의 정체성	학습 센터	아카데믹 슈퍼마켓
교수의 주요 기능	연구	교육
교수의 주요 임무	연구자	교사
학생의 기본적 성격	교수에 종속됨 학문의 생산자	대학의 고객 학습의 수동적 소비자
평가 주체	교수(학업성적 평가)	학생(수업의 평가)
교육과정 구성 논리	학문 전문화	시장 수요
학문의 자유의 중점	교사의 가르치는 자유 교수 자치 중심	학생의 배우는 자유 학생의 선택 중심
대학 의사결정의 최종적 권한 소재	교수회	스튜던트 파워 학생집단의 행동력

* 자료 : 기타무라(1995), 『고등교육의 혁신』, p.263.

라서 대학의 기능은 연구보다는 교육이 중시되고, 교수의 능력은 지식 생산자로서보다는 학생의 요구에 맞는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능력이 요구된다. 교육과정, 입학시험의 방법, 교수방법, 성적평가, 교수의 채용과 승진 등에 이르기까지 소비자 집단으로서의 학생의 의사가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 교육과정, 수업시간, 이수 요건, 평가기준 등은 모든 학생의 욕구와 수준에 적합하게 바뀌게 되고 대학은 학생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대학이라는 이름의 아카데미 수퍼마켓의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학생 중심대학은 대학 지원자가 학생들의 정원에 크게 미달되는 시점에 이르면 대학들이 지향할 수밖에 없는 형태이다. 학생집단이 바로 대학의 존재의 사활을 결정짓게 되기 때문이다.

학부제로 개편되는 대학이 학생 중심대학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지향하는 방향은 학생 중심대학이라 할 수 있다. 학부제는 소비자 중심주의적 사고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예컨대 ① 학생들의 강의 선택 기회의 확대, ② 학생의 수요가 없는 전공 또는 과목의 자연 도태 효과, ③ 학생에 의한 수업평가를 통한 수업의 질 향상, ④ 신입생의 학과 선택의 편의, ⑤ 적성이 맞지 않는 학생의 전과의 제한 폐지 등은 바로 학생 중심대학의 소비자 중심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학부제는 또 한편으로는 세분화된 학과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한국 대학들은 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학과를 개설하기도 하였고 또는 기존의 학과를 세분하기도 했다. 그 결과 편

협한 전공교육, 적성 발굴 기회 상실, 교수의 강의 부담 과다, 교육시설의 비효율적 운영, 학생의 취업 제약 등의 문제가 파생되었다는 것이다(강환국, 1995). 정범모(1992)는 현 학과 체제의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으로 ① 전공과목이 지나치게 많고 또 피상적으로 가르치는 '다량피상주의', ② 학과간의 '폐쇄성', ③ 과도한 필수과목으로 학생들의 선택을 강요하는 '타율성', ④ 협애한 전공교육 등을 들고 있다.

이같은 현 학과 체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학부제가 도입된 것이다. 즉, 유사한 또는 관련된 학과를 통폐합하여 학부를 두어 학생들로 하여금 복수전공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한 학문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하고, 대학원에서 전공의 심화과정을 밟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의 5·31 교육개혁안에도 다전공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최소 전공인정 학점제를 도입하도록 되어 있다. 총 학점수를 이제까지의 140학점에서 1/4 내지 1/6인 35~23학점 정도로 낮춘 것이다.

학부제 실시에 따른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강환국, 1995).

- ① 대학별 특성에 맞는 분야의 집중 육성으로 국제 경쟁력 강화
- ② 관련 학문의 통합으로 학제간 연구의 확대 및 학제간 공동 연구 활성화 촉진
- ③ 다양한 전공 강의 개설로 전공 과정의 충실한 심화 발전 가능
- ④ 전임교수의 교양 과정과 기초공통 과목의 강의 부담 분산으로 전공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와 강의가 가능해지고, 학생들의 강의 선택 기회가 확대됨

- ⑤ 대학 신입생들의 학과 선택 간명, 혼란 방지 및 취업 제약 극복
- ⑥ 학과 통합으로 인한 인력을 연구자원 인력으로 전환하여 연구 지원 강화
- ⑦ 학과를 토대로 한 폐쇄성 및 영역 안주 극복
- ⑧ 공간의 합리적 이용과 시설의 활용률을 높이고 예산을 절감함

그러나 학부제에는 위와 같은 장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시행상의 문제점도 따른다. 첫째, 학과의 특성 또는 학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학과의 통폐합을 일률적으로 추진하는 데 따른 문제가 있다. 둘째, 복수전공제는 단일 전공조차 제대로 이수하지 못하는 현실에 비취볼 때 교육의 질을 떨어 뜨리고 전문인 양성을 가로 막는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외에도 학과 폐지와 관련된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첫째, 학과 폐지로 전공과목이 크게 줄어들고 선택과목이 늘어나면서 인기강좌에만 학생들이 대거 몰리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둘째, 학과 폐지는 학과 중심으로 만들어졌던 대학 문화와 학생들간의 동질감이 사라지게 할 것이다.

대학원 중심주의에도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따른다. 먼저 인적·물적 자원이 대학원으로 집중되고, 이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학부교육은 경시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지금까지 '완결교육'의 성격을 지니온 학부교육은 이제 대학원 진학을 위한 '준비교육'의 성격으로 전락되어 버린다(기타무라, 1995). 대학교육이 '엘리트' 단계에서 '대중화' 단계, 나아가 '보편화' 단계로 발전·이행되는 커다란 역사 변동의 과정에서 대학원 중심주의는 학력 상상을 불러 일으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3. 학과와 대학의 특성을 무시한 학과 통폐합

학부제 실시에 따라 단과대학 내의 유사 학과들이 통폐합되기도 하고, 소속 대학이 다른 유사학과들간에도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학과의 특성 또는 학문의 특성이 무시되고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단과대학이 바로 사범대학이다.

필자가 재직하고 있는 전북대의 경우 사범대학 학과와 타단과대학 학과간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교육학과를 제외하고 사범대학의 모든 학과는 인문대학이나 자연대학 또는 예술대학의 각 학과와 통폐합하도록 권장되고 있다. 예를 들면 국어교육과는 국문학과, 영어교육과는 영문학과, 수학교육과는 수학과, 물리교육과는 물리학과, 화학교육과는 화학과, 미술교육과는 미술학과와 각각 통폐합된다. 이같은 통폐합은 사범대의 각 교과 교육과와 타단과대학 학과 간의 교육과정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것이다.

문제는 통폐합의 결과로 사범대학이 유명 무실해지고 중국에는 폐지될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사실 사범대학과의 통폐합은 사범대학 무용론을 전제한 것임을 부정하기 어렵다.

사범대학 무용론은 몇 가지 다른 이유에서 비롯되고 있다. 첫째, 인문대나 자연대 졸업생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주장되기도 한다. 일반 대학(비사범대) 교직 이수자의 경우 당해 학과 정원의 30% 이내에서 성적 B 학점 이상인 자에 국

한하여 교사 자격증이 제한 교부되고 있다. 반면에 사범대생은 재학생 전원이 교직과목을 최저 필수 과목으로 이수하게 되고, 교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만일 사범대가 없어진다면 일반 대학의 교직 이수자의 폭이 넓어지게 되어 그만큼 교직의 취업 기회가 확대되리라는 것이다.

둘째,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의 교육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따라서 구태여 사범대학을 종합대학교 안에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

셋째, 임용고시의 실시에 따라 사범대 졸업생 중에서 일부만 교직에 진출할 수 있는 현실에서 사범대학이라는 단과 대학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같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사범대학 무용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세가지 이유 가운데 가장 설득력 있게 보이는 것은 역시 두번째 이유이다. 첫번째 이유와 세번째 이유는 크게 설득력이 없다. 졸업자의 취직률에 따라서 대학의 존폐 문제를 거론한다면 다른 단과대학도 마찬가지로 될 것이다. 학자들간에도 교사 양성 교육과정의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 진동섭(1993: 148)에 의하면 “교사 양성 교육과정은 그 무게 중심을 교사가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에 두고 구성되어야 할 터인데, 현재의 교육과정은 전공과목과 교양과목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교직과정이 사족처럼 붙어 있다.” 이 문제는 교육에 관한 지식과 기술 체계의 확립과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것이다.

결국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교사 교육의 고유성, 교육과정의 독자성 확보에 있다. 이 문제는 교사를 양성하고 이를 위한 교사교육을 해야 한다는 명제를 받아들인다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교육계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아예 사범대를 철폐함으로써 해결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가?

현재 교사 양성 체계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종합대학교 안에 사범대학을 존속시키되, 다른 단과대학의 교육과정과 차별화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이다. 따라서 이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범대학의 교육과정을 다른 단과대학의 교육과정과 분명하게 구별될 수 있도록 구성·운영하는 것이다.

② 사범대학과 교육대학을 없애고 단과대학에 교직과정을 두고 이를 이수하는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사 자격증을 수여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의 장점은 단과대학과 사범대학의 교육과정 중 상당 교과들의 중복으로 인해 생기는 비효율성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안으로는 교직의 전문적 기술 문화를 발전시킬 수 없다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진동섭, 1993).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맞는 교사를 양성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③ 사범대학을 종합대학교의 한 단과대학으로 두지 않고, 독립된 대학으로(한국교원대학처럼) 발전시키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인적·물적 조건을 둘러싸고 다른 단과대학과 벌이는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대학의 기능과 운영의 우선 순위를 교사 양성에

로 집중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폐쇄적인 교직사회화 과정은 문제가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방안은 앞에서 제기된 사범대학 교육과정의 고유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남겨 놓고 있다.

④ 교사 양성 과정을 (교육)대학원에 두는 방안이다. 미국에서는 이 방안이 카네기 보고서(Carnegie Forum, 1986)에서 구체적으로 제안된 바 있다. 교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석사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인문·자연대학에서 교육받은 학사 자격을 갖춘 졸업생 중 교직 희망자를 대학원 과정에 받아들여 체계적인 교과교육학을 가르치고 인턴과정을 거치도록 한 후에 교사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대학원에서의 이러한 교사교육 방안이 교육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전국국립사범대학 학장협의회에서는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교사의 사회·경제적 위상의 추락으로 인해 교직 유인력과 매력을 상실한 상황에서 교사를 대학원에서 양성한다고 할 때, 학생들의 직업 선택에서 교직 선택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⑤ 현재의 사범대학을 존속시키되, 학과를 없애고 전공만 두어 학부제로 개편하는 안이다. 예를 들어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국어교육과를 '어문교육학부',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일반사회교육과, 국민윤리과를 '사회과교육학부',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화학교육과를 '이과교육학부', 미술교육과, 음악교육과, 체육교육과를 '예술체육교육학부'로 개편하는 방안이다. 이 마지막 방안의 장점을 강환국

(1995)은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초·중학교 교육을 위해서 학부제가 절실히 요청된다는 것이다. 현재의 사범대학 체제는 분과적인 고등학교 교사 양성을 중심으로 설계·운영되어 왔으며, 결과적으로 효과적인 중학교 교사를 양성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통합된 교과형태(특히 사회과와 과학과)로 설계·운영되고 있는 중학교의 교육과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고등학교 교육도 앞으로 교과목의 통합이 강화될 것이고, 수능시험도 통합교과적으로 출제되고 있어 학과 통합을 통한 학부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초·중·고교의 교과 수업을 담당할 교사 수급의 융통성을 위해 학부제가 요청된다. 세분화된 전공이 아니라 광역적인 교과 교사가 교사 수급면에서 보다 융통성이 있다.

넷째, 학부제는 일선 학교에서 요청하고 있는 복수전공이나 부전공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섯 가지 안은 각기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섯 가지 방안의 평가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제기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즉 교사교육의 고유성·독자성의 확보와 전문성의 제고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4. 맺는 말

학부제 실시에 따라 학과 통폐합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와 부작용이 파생되고 있다. 그 가운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대학의 특성 또는 전공별 특성이 무시되고 통폐합이 획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는데 있다.

이 문제가 가장 심각하게 표출되고 있는 단과대학이 바로 사범대학이다. 물론 사범대학에서도 학부제를 실시할 때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즉, 사범대학도 학부제의 도입으로 학생들에게 다양하고 폭넓은 학문 습득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또한 이는 중등 교육과정의 개혁에 따라 다양한 교과목을 지도할 수 있는 교사를 양성해야 할 필요성에도 부합된다.

그런데 사범대학의 경우 학부제가 사범대학 무용론을 전제로 추진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사범대학의 특수 목적성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 일부 대학에서는 사범대학 학과와 타단과대학 학과간의 통폐합이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범대학은 유명무실해지고 중국에는 폐지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같은 방식의 학부제 시행은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유리된 전문성 외적인 논리에 입각한 것이다. 사범대학에 학부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반드시 교사교육의 고유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 시점에서 가장 적절한 방안은 사범대학을 존속시키되, 학과를 없애고 전공만 두어 학부제로 개편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사한 전공끼리 통폐합한다고 해서 어문계열 학과를 어문교육학부로, 사회계열 학과를 사회교육학부로, 자연과학계열 학과를 과학교육학부로 통합하는 것은 학부제 도입의 장점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다. 오히려 사범대학 모든 전공을 개방하여 두세 가지의 전

공을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학부제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강환국(1995), "교사양성제도 개혁방향: 단기-교육과대학 설치, 장기-4+2 체제 적당, 『새교육』, 6월호, 87~91면.
- 교육개혁위원회(1995),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
- 기타무라 가즈유키(1995), 『고등교육의 혁신』(김도수 역), 서울: 교육과학사.
- 이윤식 외(1994), 『교사양성체제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연구보고 RR 94-18),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전북대학교 교수회(1995), 전북대학교 교수회 세미나 자료.
- 정범모(1992), "대학 교육과정의 재검토", 『대학교육』, '92.1(55), 51~57면.
- 진동섭(1993), "교원교육의 실상과 개혁의 방향", 『교육학연구』, 31(4), 141~158면.
- Carnegie Forum on Education and the Economy (1986), *A Nation Prepared: Teachers for the 21st century*, N.Y.: Author.
- Riesman, D.(1980), *On Higher Education: The Academic Enterprise in an Era of Rising Student Consumerism*, San Francisco: Jossey-Bass.
- Trow, M. (1972), "The Expansion and Transformation of Higher Educ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Education*, X VIII, pp.61~84.
-
- 김천기/전북대 교육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진보주의 교육이 한국 교육정책에 미친 영향에 관한 수정주의적 분석" 외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